



한화 장시환(왼쪽 2번째)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프링캠프에서 볼펜투구를 하고 있다. 한용덕 감독(맨 왼쪽)이 장시환을 비롯해 볼펜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구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장시환 공 봐, 죽여준다” 한용덕 감독의 함박웃음

“이야! 죽여준다!”

한화 이글스의 2020시즌 마운드 밑그림에는 변수가 많다. 한용덕 감독이 무한 경쟁을 선언하며 여러 선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선발 후보만도 여러 명이다. 하지만 외인 원투펀치 워릭 서폴드(30)~채드 벨(31) 듀오와 더불어 장시환(33)의 자리는 굳건하다. 장시환은 구단이 기대하는 ‘토종 에이스’의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었다.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던 장시환은 시즌 후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됐다. 한화가 백업 포수 지성준과 거포 유망주 김주현을 롯데에 내주고 장시환을 받는 조건이었다. 백업자원의 반대가 없었지만 기대치는 토종 에이스다. 지난해 풀타임 첫 선발투수를 소화한 장시환은 27경기에서 6승13패, 평균자책점 4.95를 기록했는데 구단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봤다.

일찌감치 몸을 만든 덕분에 컨디션은 이미 최상이라는 평가다. 6일(한국시간)부터 10일까지 네 차례 볼펜피칭을 소화했다. 10일 84구를 던진 장시환은 “컨디션이 잘 올라오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날 장시환이 볼펜피칭을 시작하자 한용덕 감독과 정민태 투수코치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한 감독은 장시환의 바로 옆에서 투구를 지켜보며 연신 감탄을 내뿜었다. 정민태 투수코치가 팔 높이에 대해 지적하자 “주자를 신경 쓰느라 그런 동작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공이라면 주자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자신감을 북돋았다.

팀을 옮겼지만 어색함은 없다. 장시환과 호흡을 맞춘 최재훈이 여러 가지 사인을 내자 차일목 배터리코치는 “공이 느리니까 다 잡을 수 있다. 따로 사인 내지 말라”는 농담을 던졌다. 감독과 코치들의 연이은 농담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배려였다. 장시환도 투구 사이마다 밝게 웃었다. 스스로도 “적응은 이미 다 끝난 것 같다”고 자신했다. 코칭스태프의 특급 관리, 장시환은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너스레와 함께 “감사드릴 뿐이다.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오리아(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야구장 가기 싫었다...올해 제대로 즐길 것”

명예회복 위해 구단에 1년계약 제안 “지난해 스윙부터 내 스타일 못 보여 즐기는 야구로 PS 진출도 이끌겠다”

프로 입단 20년차. 아마추어 시절 포함 야구를 해온 30여년의 세월 중 야구장에 나가기 싫었던 건 2019년이 처음이었다. 김태균(38·한화 이글스)이 지난해 낯설음을 느낀 건 기록이나 성적보다는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자신이었다. 자연히 2020년 키워드는 ‘즐기기’다.

김태균은 2019년 127경기에서 타율 0.305, 6홈런, 6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77을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OPS 0.9 밑으로 떨어졌던 김태균은 2018년(0.834)과 2019년(0.777) 차례로 하락세를 보였다. 두 자릿수 홈런 고지를 넘기지 못한 것도 2002년 이후 17년 만이었다.

1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의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김태균은 “지난해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장타나 타점의 감소 때문이 아니었다. 과정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을 리 없다는 자평이다. 김태균은 “타석에서 내 마음에 드는 스윙이나 스타일을 보이지 못했다. 투수를 상대해 게임을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해왔던 것들이 무너졌다. 그러니 성적이 안 나왔다”고 돌아봤다.

가장 큰 아쉬움은 해결사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찬스를 즐기던 모습은 사라졌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KBO리그 역대 최고의 우타자가 득점권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태균은 “성적이 안 좋으면 누구나 찬스에서 위축된다. 천하의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그걸 극복해야만 성적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아쉬움 가득했던 시즌 후 맞이한 프리 에이전트(FA) 자격. 김태균은 1년 총액 10억 원에 한화와 도장을 찍었다. 구단



한화 김태균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 차려진 스프링캠프에서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A) 1년 계약으로 승부수를 던진 그는 반등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의 다년계약을 고사한 뒤 1년 계약을 역제안했다. 베테랑들에게 보기 드문 사례다. 자신을 향한 떨어진 신뢰,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신성한 자국이 필요했던 김태균이 스스로 던진 승부수였다.

목표는 모두가 알던 김태균으로 돌아가는 것. 키워드는 야구를 다시 즐기는 것이다. 한국나이로 마흔 살에 접어들어 KBO리그 최고의 베테랑인 김태균은 지난해 야구인생 최초로 출근길이 싫었다

고 털어냈다. 낯설었던 2019년을 힘겹게 마무리한 만큼 그라운드에서 다시 웃을 생각만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아마추어 때부터 야구장에 나오는 자체를 즐겨워했다. 하지만 지난해 어느 순간부터 야구장에 가는 게 싫어졌다. 지난해 내 모습을 납득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야구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즐거우면 훈련, 경기 준비, 경기 과정 등 모든 게 즐겁다. 반대로 출근길부터 발걸음이 무거우면 모든 퍼포

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내가 그랬다.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다. 올해는 다른 거 없다. 그저 야구장에서 즐기고 싶다. 지금 스프링캠프가 즐거워서 정말 좋다.”

김태균의 목표는 오직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구를 즐기는 김태균이 필요하다. 지금 김태균은 미소를 되찾았다.

피오리아(미 애리조나주) | ing17@donga.com

‘툭타자 변신’ 심우준에게 긍정메시지 보낸 김하성 (KT)

‘절친’ 새로운 도전에 격려와 응원 심우준 “새 역할에 초점 맞추겠다”



KT 심우준

절친한 단짝이지만 그라운드 안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자 목표. 심우준(24·KT 위즈)에게 김하성(24·키움 히어로즈)이 그렇다. 리드오프 변신을 시도 중인 심우준에게 김하성이 건넨 격려의 메시지는 긍정적 자극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키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지휘 중인 이강철 KT 감독은 2020시즌 타순 변화를 구상 중이다. ‘키 플레이어’로 지목한 심우준을 1번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2015년 1군에 데뷔한 심우준은 전체 1536타석 중 1032타석(67.1%)을 9번타수에서, 150타석(9.8%)을 1번에서 소화했다. 빠른 발을 갖췄기 때문에 매년 1번타자 후보로 꼽혔지만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했다.

최근 캠프지에서 만난 심우준도 앞선 150타석의 실패를 통해 느낀 점이 많았다. “낯선 자리가 아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라며 출루율 상승을 최대 과제로 내걸었다. 타격훈련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공은 연달아 ‘버리는 것’과 익숙해지고 있다. 워낙 공격적인 성향 탓에 삼진이 많고 출루율이 낮다. 리드오프에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인 걸 본인도 알고 있다. 김강 타격코치 역시 “본인이 강한 존만 노리라고 주문했는데 제법 잘 이행하고 있다”며 대견해했다.

이 감독이 캠프 초반 ‘리드오프 심우준’ 카드를 취재자에게 이야기하며 보도가 나왔다. 심우준의 입단 동기이자 KBO리그 현 최고 유격수 김하성도 기사를 본 뒤 심우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KT 리드오프 심우준”이라는 짧은 말이었지만 격려와 응원이 담겨있었다. 김하성과 심우준, 그리고 지난해 주전급으로 도약한 박찬호(KIA 타이거즈)까지...

1995년생 내야수들은 최근 KBO리그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뿌리내리고 있다. 심우준은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봤던 1982년생 선배(이대호, 김태균, 정근우 등)들과 1990년생 선배(안치홍, 오지환, 김상수, 박건우 등)들이 한국 야구의 상징 아닌가. 1995년생 동기들도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면서 “(김)하성이는 이미 충분하지만 나와 찬호는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언제든 베이스를 훔칠 수 있는 빠른 발에 건실한 수비 능력. 여기에 2루와 3루, 유격수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주전 유격수로는 김하성이 유력하지만 ‘멀티 백업’으로서 심우준의 가치는 충분하다. 심우준은 “동기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내야를 지킨다면 무한한 영광”이라면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대표를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내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투손(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첫 봄캠프 한선태 “개막 엔트리 들어가야죠” (LG)

어깨 보강·골반 트레이닝 주력 “첫 전훈 설레고 긴장도 많이 돼”



LG 한선태

LG 트윈스 투수 한선태(26)가 다시금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처음으로 소속팀의 1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그의 새 시즌 목표는 한결 더 커졌다.

자신을 향한 사령탑의 관심을 재차 확인했다. 류중일 LG 감독은 호주 시드니에 차려진 1차 스프링캠프 48인 명단에 한선태를 포함시켰다. 이는 곧 2020시즌 한선태에게 부여할 임무가 있다는 의미다. 비 선수 출신으로 2019년 프로 데뷔에 성공한 그에게 스프링캠프 첫 초대는 또 다른 동기부여다. 한선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전지 훈련이라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됐다. 재미있게 잘 적응하고 있다. 정말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

비 시즌 건강관리에 힘썼다. 2년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타임 소화’라는 꿈을 품게 된 까닭이다. 구단을 통해 10일 “골반 트레이닝과 어깨 보강에 주력했다.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밝힌 한선태는 “2020시즌 첫 목표가 호주 캠프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뤄졌다. 다음 목표는 오기

나와 2차 캠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털어냈다.

아울러 “기회를 주신다면 연습경기와 시범경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고 싶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시즌 동안 부상 없이 1군에서 던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발자취가 갖는 영향력도 잘 알고 있다. 한선태는 “더욱 준비를 잘 해서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다른 비 선수 출신들에게도 길이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래서 더욱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프로 팀 입단을 준비 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